

그림 44 성폭력범죄 범주 피해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4. 방화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2년에는 총 1,224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2.8%가 밤(20:00~03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, 21.5%는 오후(12:00~17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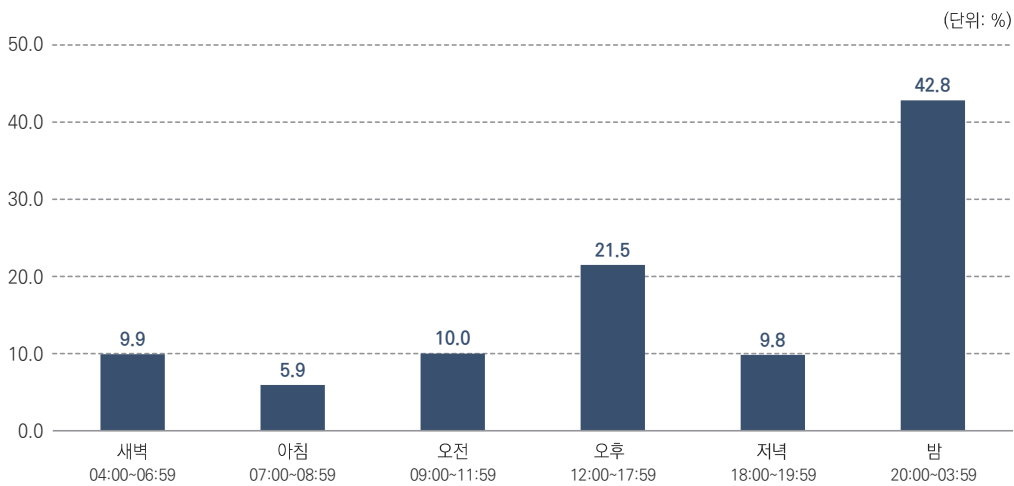


그림 45 방화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

2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의 81.9%는 남성이었으며, 18.1%가 여성으로 나타났다.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는 51세~60세가 27.8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(20.0%), 61세 이상(19.8%), 19세~30세(12.5%) 등의 순이었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의 비율이 29.6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61세 이상(20.9%), 41세~50세(19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는 41세~50세의 비율이 21.3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51세~60세(19.8%), 31세~40세(19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표 31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80(8.7)	15(7.4)	95(8.5)
19세~30세	105(11.5)	35(17.3)	140(12.5)
31세~40세	88(9.6)	39(19.3)	127(11.4)
41세~50세	181(19.8)	43(21.3)	224(20.0)
51세~60세	271(29.6)	40(19.8)	311(27.8)
61세 이상	191(20.9)	30(14.9)	221(19.8)
계	916(100.0)	202(100.0)	1,11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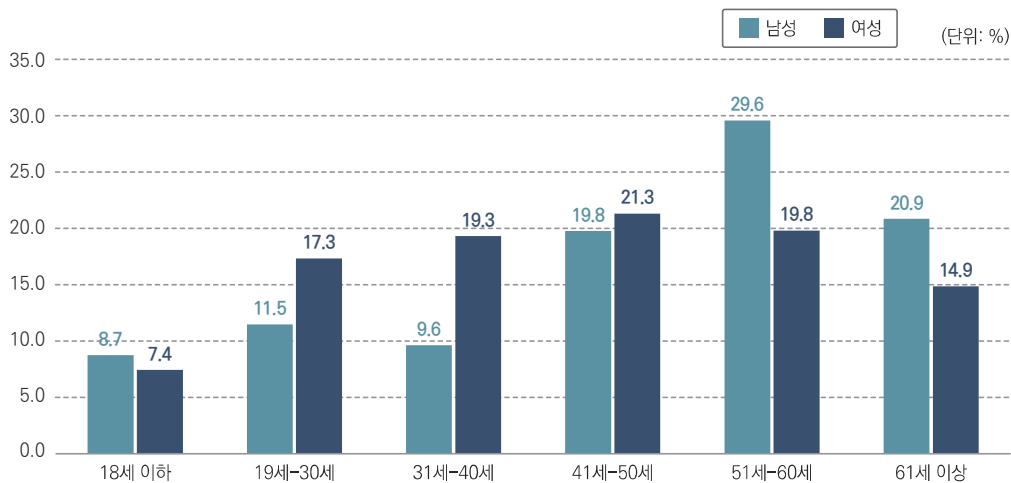


그림 46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3) 방화범죄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방화범죄 범죄자의 46.5%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, 39.0%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방화범죄 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14.5%였다.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(여성 28.2%, 남성 11.5%)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(남성 41.0%, 여성 29.9%).

표 32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정상	383(47.5)	73(42.0)	456(46.5)
정신장애	93(11.5)	49(28.2)	142(14.5)
주취	331(41.0)	52(29.9)	383(39.0)
계	807(100.0)	174(100.0)	981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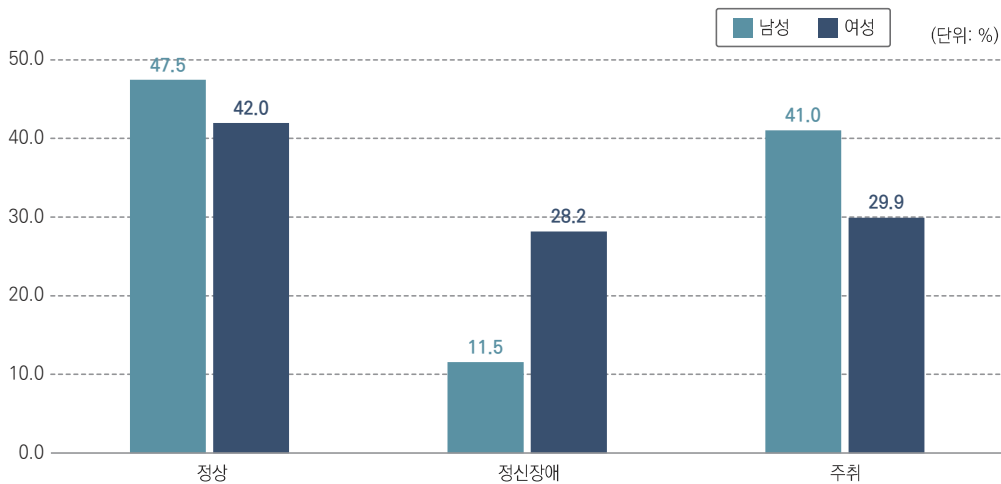


그림 47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